

2022년도 국정감사  
국토교통위원회

# 업 무 현 황

2022. 10. 11.

 국가철도공단



# 목 차

I. 일반현황 .....	1
II. 중점 추진계획 .....	3
1. 지속가능한 철도중심의 미래 대중교통체계 구축 .....	4
2. 스마트·친환경 신기술로 철도의 혁신성장 견인 .....	7
3. 선진 시설관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구현 ...	10
4. 역세권 등 철도부지를 지역혁신 거점으로 조성 .....	13
5. 고강도 경영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국민기대 부응 .....	15



# I

## 일반 현황

### 1. 연 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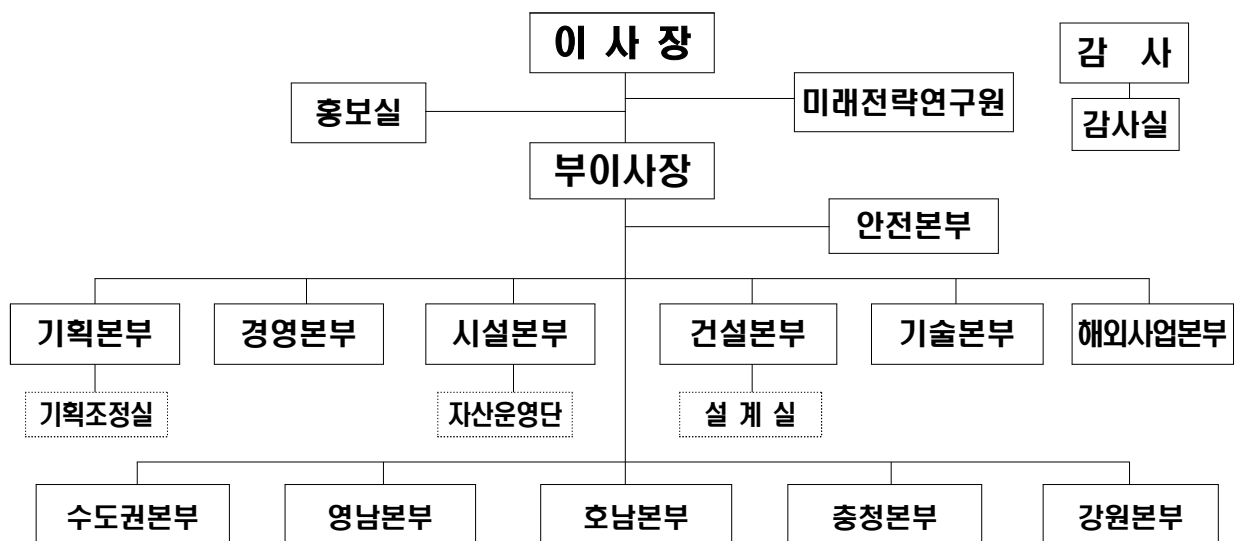
- '03. 7.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(공단 설립근거) 제정·공포
- '04. 1. 1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
  - \* 철도청 건설·시설부문 +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
- '20. 9.10 기관 명칭 변경 (한국철도시설공단 → 국가철도공단)

### 2. 주요임무

- 고속·일반·광역철도 등 국가철도망의 건설 및 관리
-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개발 및 지원
-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
- 역세권 및 철도 연변의 개발·운영

### 3. 조 직 ('22.9.20. 기준)

- 정원 2,205명, 7본부 / 2실 / 1단 / 1원 / 5지역본부



#### 4. '22년 예산·재무 현황

##### ○ 예산현황

(억원)

구 분	'21년 (A)	'22년 (B)	대 비 (B-A)
총 계	98,837	90,176	-8,661
<국 고>	57,576	54,156	-3,420
<자체조달>	41,261	36,020	-5,241
• 채권발행	24,355	17,326	-7,029
• 선로사용료	8,259	10,986	2,727
• 자산관련수입	1,762	2,218	456
• 기타	6,885	5,490	-1,395
- 사업비	69,421	63,994	-5,427
• 고속철도	4,226	5,349	1,123
• 일반철도	32,494	28,177	-4,317
• 광역철도	5,383	3,718	-1,665
• 수탁공사	1,862	1,635	-227
• 시설개량	13,454	13,066	-388
• 유지보수비	9,656	10,287	631
• 기타사업	2,346	1,762	-584
- 관리비	2,546	2,618	72
• 인 건 비	1,640	1,716	76
• 경상경비 등	906	902	-4
- 차입상환및세무경비	26,834	23,527	-3,307
- 예비비	36	37	1

##### ○ 재무현황

('21년 말 기준)

구 분	규 모	비 고
자 산	19조 303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속철도 시설관리권</li> <li>호남·수도권 고속철도 이관 전 유형자산</li> </ul>
부 채	20조 5,732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속철도 자체투자(경부·호남 50%, 수도권 60%)</li> <li>선로사용료 회수부족에 따른 부채</li> </ul>

## Ⅱ 중점 추진계획

### VISION

국민을 잇는 철도, 세계를 여는 철도

국가발전  
철도망 구축

고객중심  
안전철도 구현

철도산업  
생태계 활성화

사회가치  
거버넌스 강화

### CORE VALUES



### 중점 추진과제

- ◇ 지속가능한 철도중심의 미래 대중교통체계 구축
- ◇ 스마트·친환경 신기술로 철도의 혁신성장 견인
- ◇ 선진 시설관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구현
- ◇ 역세권 등 철도부지를 지역혁신 거점으로 조성
- ◇ 고강도 경영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국민기대 부응

# 1. 지속가능한 철도중심의 미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## 1.1 철도의 미래교통 전략산업화를 위한 성장 기반 조성

### ① 미래 교통체계 변화에 대비한 철도의 선진화 방안 모색 ('22~'23)

- 2050 탄소중립 실현, 인구감소, 지역메가시티 개발, 신교통수단 도입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철도의 발전 방향 발굴

### ② 철도강국 도약을 위한 국내최초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('22~)

- 철도산업 부문별 (산업·기술·안전·물류 등) 기능·시설\*을 집적하여 시너지 창출과 철도산업 선순환구조 마련

\* 차량·부품생산단지(산업), 시험선로 고도화(기술), 제2철도관제센터(안전) 등

\*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 (~'23.4., 국토교통부·철도공단 발주)으로 '28년 건설 목표

### ③ 철도 투자평가 제도 개선 등 철도사업의 경제성 향상 도모 ('22~'23)

- 도로에서 옮겨오는 수요 중심의 평가에서 철도 자체 편익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철도 평가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
- 철도의 특성을 반영한 편익을 추가 발굴하여, 철도사업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제4차 국가철도망 실현 가능성 증대

철도특성 반영한 편익	신규 편익 발굴 항목
통행시간 신뢰성 가치, 선택가치, 여객 쾌적성 향상 등	도로→철도 전환 이용객의 차내 여유시간 증가, 탄소중립 실현 반영한 신규 편익 등

- 신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
- [사전조사] (진행중) 대구~경북 등 12개 사업, (발주중) 원주연결선 등 3개 사업, (계획중) 분당선 왕십리~청량리 등 5개 사업
- [예비타당성조사] 문경~김천, 제2경인선, 평택~부발,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등 4개 사업



### ①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가균형발전 사업 등 신규노선 적기 착수

-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인 평택~오송 2복선화, 남부내륙철도, 대구 산업선,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사업 추진
  - \* [설계착수] 대구산업선, 석문산단 인입철도, [설계진행] 평택~오송 2복선, 남부내륙철도
- 철도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신분당선 연장(광교~호매실), 대전~옥천 광역철도 등 4개 사업 적기 추진
  - \* [기본설계] 신분당선, 천안~청주공항, [실시설계] 대전~옥천, 여주~원주
- 춘천~속초, 강릉~제진 등 4개 일반철도 사업도 적기 착공
  - \* 장항선 신성~주포, 대전차량 인입철도 등

### ②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·광역민자철도 사업 정상 추진

- 수도권 주요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적극 추진
  - \* (GTX-A) “조기개통 TF”를 구성 ⇒공사 진행상황 점검과 개통 장애요인 조기 해결
  - \* (GTX-B,C) 조기 착공 위한 노력 지속(사업자 선정(B), 민자적격성 검토(C) 진행 중)
- 인접 도시간 접근성 향상과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구·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차질없이 추진
-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대곡~소사, 신안산선 등 계속사업과 함께 대장~홍대 등 신규 민자철도사업 추진 지원

### ③ '22년 중점 철도망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

- 고속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고속철도 사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서해선 등 9개 일반철도 사업도 정상 진행
  - \* [고속] 호남고속2단계, 대전북연결선, 인천발·수원발 KTX
  - \* [일반] 서해선, 동두천~연천, 포항~삼척, 포승~평택, 도담~영천, 보성~임성리, 이천~문경, 인덕원~동탄, 월곶~판교 등 9개

### 1.3

## 친환경 철도 확대로 교통분야 탄소중립 선도

### ① 「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R 추진전략」 이행

- 2050년까지 철도가 수송부문 탄소감축 목표량의 20% 달성에 기여하고, 수송분담률을 30% 이상\*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전사적 과제 이행

\* 철도 수송분담률(인): ('19) 11.5% ⇒ ('30) 17% ⇒ ('50) 30% 이상 달성



### ② 철도망 구축단계별 구체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

- [설계] 탄소저감 자재·장비 반영 등 저탄소 시공을 위해 설계용역 표준과업내용서 및 기술형 입찰(T/K 등) 입찰평가기준 개선

\* [구조물 사전제작] 응벽, 교각 등 현장제작 대비 약 6.3% 탄소배출 저감

- [시공]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른 전철화, 철도현장 탄소배출 실태분석, 친환경 장비·자재 도입

- [제도]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파악, 전문기관 협업을 거쳐 저탄소 기반의 기술개발, 건설기준 정비 등 탄소중립 활성화 대책 제도화

\* [스마트 철도] 전철전력 설비 Full 디지털화,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구축 등

\* [탄소중립 교통체계]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제로에너지 역사 추진 등

## 2. 스마트·친환경 신기술로 철도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.

### 2.1 한국형 철도기술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

#### ① 초고속 (400km/h급) 철도기술 기준을 정립하여 상용화 기반 마련

- 철도 핵심분야(궤도, 전차선, 신호, 통신)에 대한 400km/h급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 절차 정립 ('22.12)
- \* 평택~오송 2복선 사업 노반분야 실시설계 착수 ('22.3~) 등 상용화 추진

#### ② 한국형 열차제어기술 (KTCS-2)과 무선통신망 (LTE-R) 확대 구축

- [KTCS-2]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전략을 마련, '22년 설계 착수 ('22.11)하여 '30년까지 국가철도망 표준화 완료 및 확대사업 추진
- [LTE-R] 고속선, 일반선 등 전체노선을 '28년까지 최우선 구축

#### ③ BIM, TBM 등 선진기술 활성화로 K-철도 경쟁력 확보

- 설계·시공 BIM\* 적용사업 중심으로 시공 중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건설기준 등 제도정비와 함께 스마트기술 활성화 방안 수립 ('22.11)
- \* [Building Information Modeling] 3차원 정보모델링으로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설계단계에서 디지털 모형으로 통합하고 시공·유지관리 단계까지 연계
- GTX 등 도심통과가 증가하는 사업환경을 감안하여, 도심 굴착 시 발파 방식에 비해 안전하고 소음·진동이 적은 TBM\* 활성화 추진 ('22.11)
- \* [Tunnel Boring Machine] 기계식 굴착공법으로 발파 대비 소음·진동 발생 1/4 수준 (TBM 도입률 → 유럽 80% / 일본 60% / 한국 1% 내외)
- 중단없는 철도관제를 위해 첨단기술(AI 등)을 활용하여 제2관제센터(오송)를 구축하고, 기존 관제시스템(구로)도 개선하는 등 철도관제 고도화
- \* (1단계\_ '26) 제2관제 구축 ⇒ (2단계\_ '28) 구로관제 고도화 ⇒ (3단계\_ '29) 트윈관제 운용

## 2.2

##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형 철도인프라 관리체계 확립

### ① IoT 기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

- 전기설비 IoT, 변전설비 디지털화 등 철도시설물 IP화에 따라 전국 철도노선을 All-IP 할 수 있는 IoT 전용망 구축 (~'23.12)
  - 고용량·초고속 서비스가 가능한 최신의 전송설비 적용
    - \* (전송설비) 전자 장비간 원격 통신을 위한 접속장치
      - ☞ 총 1,435개소(고속 274개소, 일반 1,164개소)에 최신 전송설비 구축
- 통합 시설물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열차운행 지원
  -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량·터널 등 주요시설 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설물 판단·제어 등 의사결정 가능
    - \* 강릉선 서원주~횡성(11km) 구간에 시범 구축 (~'22.12) 후 운영·검증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선별 확대 적용
- LTE-R 기반 스마트 안전 솔루션 적용으로 운행선 공사 안전확보
  - \* LTE-R 기술을 이용, 운행선 작업자에게 열차접근 경보 실시간 전송

### ② 혁신적 스마트역사를 구축하여 국민편의 중심으로 철도이용 환경 개선

- 脫 밀집, 밀폐, 밀접 등 3密的 건축적 요소를 지양하고,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역사 설계로 역사 내 혼잡도 대폭 개선
  - \* 승하차 여객 동선분리, 교통수단 간 무정지 평면환승, 비접점 스마트게이트 등 구축 후 운영 효과에 따라 단계별 확대 적용
- AI 학습을 통한 스마트 공조시스템 도입으로 청정 역사환경 유지
  - \* 공공데이터와 현장 실측정보를 활용,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미리 예측하고 공조시스템 가동
  - \* 월곶~판교, 인덕원~동탄 등 4개 사업 23개 역사 설계 추진 ('22~'23)

## 2.3

## 저탄소·에너지 효율화 기술 확대로 녹색경제 전환 가속화

### 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기술 적용 확대

- 변전설비 전력개폐장치 절연가스(SF<sub>6</sub>)를 대체할 친환경 개폐장치 개발을 추진하고, 건설·개량으로 폐기되는 절연(온실)가스 처리 기술 도입
  - \* [친환경기기 개발] 부분 도입('21)⇒기기 개발유도(∼'23)⇒친환경기기 전면도입('25)
  - \* [온실가스 처리] 로드맵 수립('21)⇒가스처리(한전) 업무협약('22)⇒처리기술 도입('25)
- 역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, 철도부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에너지전환 지원
  - \* [전기차] 주차구역 기준(100면당⇒50면당) 확대, 주차면수 대비 5% 이상
  - \* [수소발전] 한국수력원자력과 MOU 체결('22.3)하여 발전사업모델 다각화 추진  
☞ (영천시) 소규모 분산형 전원, (의왕시) 수소충전소 결합형 모델

### ②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용하여 철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구현

- 고효율 친환경 역사 건설로 철도역사 에너지 자립률 확대 추진
  - 철도역사\* 설계 시 효율이 좋은 단열재를 적용하고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지열 등) 사용률을 높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
    - ☞ 에너지자립률 '23년 32%⇒'25년 60%(정부계획[30년 60%] 대비 5년 단축 목표)
  - \* 연면적 1,000㎡ 이상 철도역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하고, 500㎡ 이상 역사에도 제로에너지 인증 시범사업 추진
- 심야 전기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'에너지저장장치(ESS)' 시범설치
  - \* 2개역(동해선 후포역, 평해역) 시범 설치('22년) 후 결과 분석하여 확대 적용
- 역사 공용부분(승강장 등)에 에너지절감 위한 조도 디밍기술 적용('22.11)
  - \* [LED Dimming] 철도이용객 감지 센서로 LED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설비
- 통신 전송설비 가상서버 통합으로 사용에너지 감축 노력
  - \* 방안수립('22. 10)⇒가상서버 설치('23. 3)⇒기존 서버 단계별 통합('23.12)

### 3. 선진 철도시설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철도를 구현하겠습니다

#### 3.1 시설관리자 역할 강화로 철도안전관리 체계 개선

##### ① 철도시설관리 플랫폼 구축 등 시설관리자로서 실질적 역할 제고

- 철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(RAFIS) 구축·고도화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·예방적 시설관리 의사결정체계 확보('23.1)
  - 철도시설 전 생애주기의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시설관리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
- 열차운행과 직결되는 소규모 유지보수성 개량사업만 위탁(철도공사) 하고, 그 외 시설개량 사업은 공단 직접 시행\* 확대(~'22.12)
  - \* 공단 시행분 : '21년 8,130억원 (전체의 63%) ⇒ '22년 9,807억원 (75%)
- 노후도 위주 시설관리 방식에서 탈피, 안전성·내구성·사용성 중심의 시설물 정밀진단·성능평가\* 결과와 연계한 관리 방식으로 전환('22.5~)
  - \* 기존 1·2종 시설물 ⇒ 전 철도시설물(궤도, 시스템 설비 포함)로 확대 시행

##### ② 유지보수 위탁시행분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로 유지보수 효율화 유도

- 철도공사의 유지보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유지보수 효율화를 유도 하고, 변별력 있는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개선\*('22.12)
  - \* 現 궤도·전차선 분야 ⇒ 전 분야로 평가 확대, 고득점 지표에 대한 변별력 강화 등

##### ③ 체계적인 유지보수 장비 현대화로 스마트한 유지관리 기반 확대

- 유지보수 대상 시설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첨단 유지보수 장비도입 확대
  - \* [도입완료] 선로점검차(2대), 소형다짐장비(12대), 고압살수차(1대), 드론(13대)  
[추가도입] 소형다짐장비(8대, '22. 9), 레일연마차(제작 중, '24.上.) 등
- 기존 장비도입 이후 개선효과를 분석하고, 추가 투입장비의 우선 순위 등 도출을 위해 중장기 유지보수 장비도입 마스터플랜 수립(~'23.7)

## 3.2

##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

### ① 경부고속철도 1단계, 수도권 광역철도 구간 등 노후시설 적기 개량

- 「경부고속1단계 개량사업 종합계획」에 따른 세부 시행안 마련('22.12)
  - \* 장비운영계획, 속도향상 방안, 전 분야 동시작업, 적정 차단작업시간 확보 등
- 고속철도 변전설비 (천안~대전 8개소)와 배전선로 (61km) 개량 본격화(~'24.6)
  - \* 고속철도 천안~대전 이외 구간은 '22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개량(~'27.12)
- 수도권 광역철도 (7개 노선) 전차선로 등 노후 전기설비 집중 개량
  - \* 분당선 등 3개 노선 (85km) 개량(~'23.3.), 경인선 등 4개 노선 (203km) 개량(~'24.12)

### ② 성능 향상, 재해예방시설 보강으로 철도시설물 안전 강화

- 노후, 기능 저하된 구조물의 성능을 개선하고, 재해예방시설과 철도 횡단시설 등을 확장하여 안전한 철도시설 환경 조성
  - \* ('22년 시행) 성능개선 249개소, 재해예방시설 확충 194개소, 횡단시설 확장 5개소
- 터널경보장치, 스마트건널목 등 안전설비 확대 구축으로 이용객·유지보수자 안전 강화 (~'24.12)
  - \* (터널경보장치) 경부·호남선(47개소) 설치('23.1.) ⇒설치효과분석 후 구축계획 재수립('23.上)
  - \* (스마트 건널목) '22년 1개소 시범설치 효과분석 시행 및 구축계획 재수립

### ③ 철도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·편의시설 확충

- 철도역, 무인기능실 등에 영상감시장치 (CCTV) 단계별 설치 ('22.12)
  - \* 전국 43개 노선(총 1,509개소, 6,108대), '21년 541개소 ⇒ '22년 968개소
- 승강장 안전문 (PSD)과 역사 승강설비 (E/S, E/V)를 추가 설치하여 국민의 철도이용 환경 개선
  - \* ('22년 시행) 안전문 37개소, 승강설비 49개소, 공조설비 15개역 등 설치



### ① KR 맞춤형 안전대책 시행으로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
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등 최신 안전 법령을 반영하여 공단 내규 등 전면 재정비 ('22.1) 후 현행화 ('22.11)
  - \* 안전보건관리규정, 재난예방·사고처리지침, 위험성평가프로세스 전면개정 완료
- 공단 등 산업재해 경향 분석하여 감소대책을 마련하고, 모니터링 ('22.12)
  - \* '22년 전년 대비 산업재해 20% 감축 목표로 高위험현장 선정 및 집중관리 등
-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진 특별 점검과 불시점검, 소규모 현장 지도 등 대폭 확대
  - \* '21년 점검 (12회, 3,792개소) 대비 15% 증가한 연 14회(4,000개소) 이상 추진
-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철저 이행·개선
  - \*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·개선(반기 1회 이상)

###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생명 중시 철도현장 조성

-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위험작업 중심으로 표준 점검체계 구축 ('22.12)
  - \* 안전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험작업(고소, 가시설 등) 의무점검항목 마련
- 무분별한 휴일공사 시행을 방지하고 불가피한 휴일공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사업관리시스템 활용한 실시간 관리체계 가동 (~'22.12)
- 일용직이 많은 건설현장 고용형태와 안전체험장 접근성 부족을 감안한 VR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(~'22.12)
  - \* 안전에 취약한 신규 투입·외국인 근로자 가상체험(VR) 교육 의무화 완료
- 건설공사 작업허가제 대상범위에 건설기계·설비작업을 추가하여 기계화 시공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사망재해 (부딪힘, 끼임) 예방
  - \* 작업허가 대상기계와 설비작업 범위 등 작업허가기준 개선 ('22.12)



## 4. 역세권 등 철도부지를 지역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
### 4.1 적극적인 철도자산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

#### ① 역세권을 철도망과 연계한 Compact-City로 조성, 지역거점화 유도

-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체계 정비, 제도개선 추진
  - \* 「역세권개발법」 개정 추진 (국토교통부)하여, 철도역 중심의 역세권개발을 주도하고 개발 이익(25%)의 철도시설 재투자 범위 확대를 유도 ('23.6)
- 철도건설과 연계한 개발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(7개역 대상) 역세권 기본구상과 대상지 선정을 완료('22.10)하고 사업타당성 분석 ('23.6)
- 수서역·울산역·천안아산역 환승센터를 추진하여 철도역사 중심의 컴팩트한 환승네트워크 구축
  - \* 울산역 (인·허가 추진, '22.12), 천안아산역 (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, '22.12)

#### ② 철도교통 중심의 역세권 통합개발로 지역 랜드마크 조성

- 수서역세권 업무·유통지구 용지(5개 블록, 28,045㎡) 분양 ('22.12)
- 춘천역세권 신사업모델 (도심외곽형)\*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('23.12)
  - \* (도심외곽형)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철도역 중심의 신도시 개발
- 수색~광명 예타결과 반영하여 서울역 종합개발 사전타당성 검토 ('22.11)

#### ③ 민간참여 기반의 관광자원화 확대로 공단 수익성 제고

- 중앙선 단양군 폐선구간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시설 개발을 위해 舊단성~죽령 개발 착공 ('22.12), 단양역~심곡터널 출자회사 설립 ('23.6)
  - \* [舊단성~죽령] 풍경열차, 레일바이크, [단양역~심곡터널] 트램, 모노레일, 미디어아트터널
- 양양 인구정차장 (해양레포츠 특화지구), 초곡 철도부지 등 민간 부문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관광명소화 추진 ('22.12)
- 경주 폐선구간 (68km, 18개역)은 민간제안 공모 결과 ('22.7)를 참고하여 사업추진 방향 정립 ('22.12)

## 4.2

## 철도재산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

### ① 체계적인 철도자산 관리기반 강화

- 자산정보(DB), 지리정보(GIS)를 연계한 재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 운영(22.8~)
  - \* 철도재산 정보 및 기재부·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통합 연계('22.7)하고, 시스템을 활용하여 등기정보를 반영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('23)
- 철도 국유재산 관리실태 및 이용현황 전수조사 추진('22.6~12)
  - \* 철도 유휴부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유형별(보존, 활용, 매각, 기타)로 분류 ⇒ 유휴부지의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

### ② 지자체,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여 철도재산 활용 다각화

-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청년·취약계층 주거 안정 기여
  - \* 민간임대주택 대상지 발굴 및 민자유치 활성화 위한 점용허가 제도개선 추진('22.12)
  - \* 대학생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기숙사(600명) 부지 무상사용승인(장학재단)
- 지자체와 함께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확대
  - \* 공용목적 사용료 대폭 인하(2.5%→1%), 지자체 공모 등 활용 다변화 지원
- 민간플랫폼 사업자 협업으로 유휴부지 정보의 대국민 제공('22.11)
  - \*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등에 임대 가능한 철도재산의 정보공개 다각화

### ③ 공단의 대표 철도자산활용 브랜드, 철도어린이집 「키즈레일」 확대

- 지역사회 맞춤형 직장인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자체 협업 사업인 철도어린이집의 성공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
  - \* ('19)평내호평역⇒('22)여주역(9.16.개원), 탄현·행신역(12월준공)⇒('23) 정읍·거제역

### ④ 철도자산 내 생활체감형 지원사업 증대로 동행의 가치 전파

- 중증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섬섬옥수(네일케어) 사업 확대 등
  - \* ('19)부산역 ('20)익산역 ('21)대전·용산·김천구미·울산역 ⇒ ('22)영등포·안양
- 창업·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스타트업라운지 2개소 조성
  - \* ('20) 3개소(공덕역·대전역·백스코역)⇒('22) 2개소(동탄역, 오송역)

## 5. 고강도 경영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.

### 5.1 경영효율화 및 관리체계 개편으로 혁신기반 마련

#### ① 핵심기능 중심의 조직·인력·예산운영 체계 정비로 경영 효율성 제고

- 기능조정에 따른 조직 재편, 인력 재배치와 경상경비·업무추진비 절감 등 조직·인사·예산운영 체계 효율화 추진

\* ('22년) 하반기 경상경비 예산의 10.2%, 업무추진비 예산의 10.4% 절감

#### ② 내부 관리체계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로 방만경영 요인 제거

- 복무관리 상 방만요소를 진단하여 해소하고, 노동이사제 도입, 직원의 이사회 참관 확대 등 내부 투명성 강화방안 이행
- 철도자산 임대 활성화와 개발사업 다각화 등 자구노력으로 향후 5년간 수익 1.3조원을 창출하여 재무구조 개선

#### ③ ESG 기반 전략체계 실행으로 경영혁신 가속화

- ESG 관점의 성과지표 (온실가스 감축률 등) 신설 등 ESG 경영전략과 연계한 KR 2030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를 통해 실행체계 가동

\* 「탄소중립철도전략위원회 ESG 분과」 등 활동을 통해 ESG 경영체계 지속 점검

#### ④ 올바른 계약문화 구축으로 공정한 철도산업 생태계 조성

- 입찰공정성 개선 등 성과를 도출한 계약제도 혁신 TF에 관련협회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등 공공계약문화 확산 유도 (연중)
- 담합, 계약 미이행,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엄정 처분하고,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부적격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 (연중)
- 우수 중소기업의 철도사업 참여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(연중)

## 5.2

## 민간기업 등 성장 지원을 위한 플랫폼 역할 강화

### ① 민간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해외진출 협력 공고화

- 한국형 철도기술을 바탕으로 민간·차량제조·운영사 등과 Team Korea를 구성,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타당성 조사 후 국가별 맞춤형 사업 제안
  - \* ('21년) 코스타리카, 페루 2개 운영 중 → ('22년) 방글라, 인도네시아 등 확대
- 해외발주처의 Needs와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고, 국내기업-발주처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 수행
  - \* 국토교통부와 함께 「해외시장 진출 활성화」 컨퍼런스 개최 ('22.11)
- 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선택·집중적인 해외철도시장 진출 활동을 전개하고, 아프리카·중남미 등 신규시장 발굴노력도 병행
  - \* 수주중점사업 14개 선정 ⇒ 모로코 고속철도 설계용역(3공구) 수주 성공 ('22.7)

### ② 과감한 예산 집행 등 완전한 국가경제 회복 적극 지원

-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집행에 집중하며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 지속
  - \* '22년 사업비 7조 4,843억원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
- 국민의 취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
  - \* 지역인재 채용 ('21년 21% → '22년 24% → '23년 27% → '24년 30%)
  - \* 철도재산 활용사업 확산으로 '22년 일자리 2,545명 창출 목표(전년대비 10% 상향)
- 협력사,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 활동 확대
  - \*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「민·관 공동투자 협력펀드」 30억원(중소벤처부 15억, 공단 15억) 조성하여 중소기업 지원 확대('22년 9건)

### ③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으로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여

- 신규 개통노선의 역 편의 정보 등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창출
  - \* 국민의 교통편의시설 접근성 제고와 함께 민간의 철도관련 비즈니스 창출 가능